

문 닫는 유치원·미니학교... '학령인구 감소' 심상찮다

광주 공립초 신입생 50명 이하 44곳...5명 입학하는 곳도 유치원생도 매년 400명 가량 줄어...병설유치원 첫 휴원

학령인구가 급감하면서 한 학년에 하나의 학급만 있는 '미니학교'가 늘고, 문을 닫는 유치원들도 증가하고 있다. 올해 신입생이 50명 이하인 초등학교가 광주에 40여 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률 저하로 신입생이 줄어들고 '미니 초등학교'가 늘어나는 등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13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6~7일 예비소집 이후 입학 예정자를 집계한 결과, 광주 공립초등학교 151곳 중 44곳의 입학예정자가 두 학급 구성 최소인원인 50명 이하였다.

인원수별로 나눠보면 41~50명 9곳, 31~40명 9곳, 21~30명 8곳, 11~20명 6곳, 10명 이하도 12곳이나 됐다. 단 5명만 입학하는 학교도 있었다.

시 교육청의 자료에 따르면 광주의 학급당 학생 수는 평균 22명대이다(2020년 기준). 따라서 신입생이 50명이면 두 학급 정도가 나올 수 있지만, 20명대 이하라면 한 학년에 한 학급일 가능성이 크다.

한 학년에 한 두 반 정도인 '미니 초등학교'가 계속 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18년 4월 기준 신입생 50명 이하 공립초등학교는 33곳이었는데 2019년에는 37곳, 지난해에는 39곳까지 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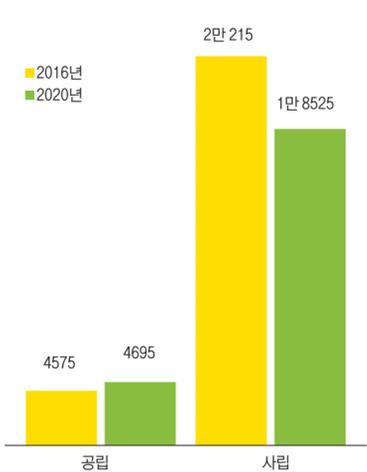
이 같은 수치는 입학 전 접계를 기준으로 한 것인 만큼 실제 입학생 수는 더 줄어든다는 게 교육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입학 전 학교를 옮기거나 타 지역으로 전출할 수도 있고 입학유예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유치원생도 매년 400명 가량 줄고 있다.

시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공립유치원(단설·병설)과 사립유치원에 재원한 유치원생은 2만 3220명으로 4년 전인 2016년 2만 4790명과 비교해 1570명(6.3%) 줄었다. 매년 유치원생이 평균 392명 줄고 있는 것이다.

공립은 지난해 4695명으로 2016년 4575명과 비교해 120명(2.6%) 증가했지만, 사립은 지난해 1만 8525명으로 2016년 2만 215명과 비교해 1690

■ 광주 공립·사립유치원생 변화 추이 (단위:명)



명(8.3%) 감소했다.

이에 따라 사립유치원을 중심으로 문을 닫는 유치원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공·사립 유치원은 290개로 2016년 311개와 비교해 21개(6.7%) 줄었다.

특히 원아 모집에 비교적 어려움이 적었던 공립 유치원도 최근 들어 원아 모집이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 교육청은 올해 원아 모집이 되지 않은 중앙초·월곡초·동초·차평초 병설 유치원 등 4곳을 3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1년간 휴원하기로 했다. 원아 모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병설유치원을 한시적으로 휴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광주에서 매년 신생아가 1000여 명 줄어들어 유치원생 감소 현상도 불가피하다"며 "앞으로 원아 모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휴·폐원하는 유치원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16개월 된 입양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첫 재판이 열린 1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양부 안 모 씨가 재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정인이' 양모에 살인죄 적용 검, 1차 공판 공소장 변경 신청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에게 검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양씨는 변호인을 통해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양씨와 남편 안모씨의 1회 공판에서 양씨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양씨의 공소장에 적힌 혐의는 원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이었으나, 검찰은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삼고 기존의 아동학대 치사는 예비적 공소사실로 돌리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은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학대를 당하던 피해자의 복부에 강한 둔력

을 행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알고도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강하게 밟는 둔력을 가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양씨를 기소하면서 아동학대 치사와 아동 유기·방임 등 혐의를 적용했지만, 살인죄는 공소장에 적지 않았다. 살인죄를 적용하려면 범인이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사망에 이를 만한 위력을 가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검찰은 당시로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기소 이후 법의학자 등의 검토를 거쳐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정했다"며 "사인을 감정한 부검의와 법의학 교수의 의견 등 자료를 추가로 제출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전남교육청, 코로나 확진자도 임용시험 기회

내일까지 2차 시험

전남교육청이 코로나19 확진자에게도 교사 임용시험 응시 기회를 주기로 했다.

13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최근 '확진자도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결정한 취지를 존중, 확진자라 하더라도 이번 2차 임용시험에 응시하도록 했다.

응시생 중 코로나19에 확진된 사람은 치료시설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시험을 치르며,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서와 확진자 응시 신청서를 작성해 미리 제출해야 한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전남도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유·초)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2차 시험은 13일부터 3일간 무안 오룡초등학교와 목포 부주초등학교에서 실시된다.

1차 시험 합격자 534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시험은 13일 교직적성 심층면접, 14일 수업실연 순으로 진행된다. 마지막날인 15일에는 초등 응시생을 대상으로 영어수업 실연과 영어 면접이 이뤄진다.

모두 437명을 선발하는 이번 임용시험의 최종 합격자는 2월2일 오전 10시 전남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발표될 예정이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병역검사일 신청하세요 광주전남병무청, 21일부터

올해 병역판정검사를 원하는 날짜와 장소에서 받기 위한 신청이 오는 21일부터 시작된다.

13일 광주전남지방병무청은 병역의무자들의 상태를 검사해 징병 여부와 징병시 어느 분야에 복무를 시키는 게 좋을지 판정하는 검사인 '병역판정검사'에 대한 신청을 오는 21일 오전 10시부터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접수받겠다고 밝혔다.

병역의무자는 '병역법' 제11조에 따라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며, 대상자의 편의와 자율적 병역이행을 위해 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장소를 직접 선택하는 본인선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광주전남지방병무청 검사 기간은 '코로나19'로 일정이 조정될 수도 있으나 오는 5월 27일~11월 30일까지이다. 하지만 6월25일, 7월 26일~8월3일, 8월 27일~10월 27일~11월 18일 등에는 검사가 실시되지 않는다.

올해 병역판정 검사 대상자는 만 19세가 되는 2002년생 대한민국 국적자 남성과 이미 연가중인 사람이다. 신청은 병무청 홈페이지 또는 병무청 모바일앱으로 가능하고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신중년' 맞춤형 일자리 제공 광주 북구 국비 4억여원 확보

광주시 북구가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꾸꾸는 '신중년'들에게 맞춤형 일자리 233개를 제공한다.

13일 북구에 따르면 북구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2021년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4억 8200만원을 확보했다.

이번사업은 50세 이상 70세 미만 은퇴 전문 인력이 그동안 쌓은 지식과 노하우를 기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맞춤형 일자리사업이다.

북구는 올해 사업에 참여할 기관·단체를 모집, 오는 2월까지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3월~12월까지 총 사업비 5억 3600만원을 들여 중장년층 전문 인력 233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북구는 사업 참여자들이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문화, 예술,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인 북구정장은 "이번 사업이 비영리단체, 사회적기업 등이 안고 있는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중장년층의 사회적 경제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강석이의 유머인생
밤벌레의 행복
이기원 지음

정가 12,000원

전라도 촌놈 이기원이 쓴

'밤벌레의 행복'

유머와 에세이의 만남 **강석이의 유머인생**

작은 책상과 TV와 노트북, 책꽂이와 장롱이 서로 기대고 있는 서재방인지 골방인지에 쭈그리고 앉아 지나온 발자취를 회상하며 글을 써본다. 이왕이면 재미도 곁들여서 말이다. 이를테면 유머형 에세이다. 별로 특별한 삶을 살아온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는 소중한 인생이라고 자위해본다. 이 책이 열심히 살아가는 모든 분들께 조금이나 위안이 되고 삶의 활력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지은이 이기원

행복요양원

서점판매 | 광주(영풍문고, 충장서림, 세종문고, 초원서점, 나남문고, 글방문고), 순천(중앙서점), 목포(영풍문고)
전주(영풍문고, 응진서적, 흥지서림, 민중서관), 김제(제일서림), 완주(혁신문고)

인터넷판매 | 교보문고, 영풍문고
알라딘, 에스24 (배송료 무료)

